

AUTHOR 김재성 (Jae Sung Kim)

TITLE 목회사역과 성령의 역할에 대한 칼빈의 목회적
교훈들

(The Holy Spirit and the Pastoral Ministry
in Calvin's Theology)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13 no.2 (November, 1995):339-357

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인 뿐이다.

칼빈은 육체와 영혼의 연합을 아무런 혼란이 없는 관계로 보고³⁶⁾ 동시에 영혼과 육체의 구별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구별이라고 주장한다.³⁷⁾ 그리고 복음의 지극히 적은 교훈이라도 플라톤의 사상 체계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강조하고³⁸⁾ 철학자들의 영혼관은 항상 불확실하다고 하였다.³⁹⁾ <다음호에 계속>

36) *Inst.* I. 14. 1

37) *Inst.* I. 5. 5.; I. 15. 2)

38) *Com. John* 16:29

39) *Psychopannychia*, p. 420.

목회사역과 성령의 역할에 대한 칼빈의 목회적 교훈들

김재성

<조직신학, 전임강사>

서론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로서 알려져 있다.¹⁾ 특히 그의 신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기독교강요」에 보면, 다음의 네 가지 주제들 속에서 성령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 I 권에서는 성경의 저자로서의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한다. 제 II 권에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의 신성과 지위를 설명하고 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삼위에 해당하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로서 만물의 창조에 참여하셨으며, 재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신다. 제 III 권은 거의 전부가 성령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성령께서 인간의 내부에서 역

1) Benjamin B. Warfield, "John Calvin as Theologian". in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6), p. 487.

사하시되, 주관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subjective operation). 제 II권에서 다뤘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인데, 이 믿음의 창시자요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접착제(bond)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union with Christ)이 신비롭고도 언약적으로 이뤄지게 하신다. 제 IV권에서는 성령의 외적인 사역(objective operation)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성례에서 영적으로 입재하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야말로 은혜의 수단인 이 예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와 같이 성령은 칼빈의 신학의 중심에 흐르고 있어서 단지 논리적인 나열에 그치지 않고, 그의 신학적 진술에 있어서 역동성과 경건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칼빈의 성령론 전반을 다루거나,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나 객관적 역사 등, 교리적인 체계를 다루지 않고, 교회의 목회활동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그가 가르친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 목회사역에 바른 원동력(dynamic)과 현신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다.

1. 이중적 구조 (Twofold structure)

칼빈의 신학적인 진술이나, 설명, 주석에는 이중적 구조가 종종 들어있음을 발견한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서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한 긴밀히 연결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들이 한 가지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때였다. 동시에 이런 이중적 구조로 접근하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 내용이 서로 떼어놓기가 애매한 진리들을 설명하는데도 유의하였다. 우선 두 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1.1. Duplex cognitio Dei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구속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독교 교강요」 제 I권과 제 II권의 제목이자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 지식이다. 이 둘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

「기독교 강요」 서두에서 칼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지식은 이중적이라고 하였다. 참된 지식에 관해서도 분리시킬수 없는 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스스로를 아는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가지, 이중적 지식(duplex cognitio)은 서로 뗄레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있고, 어떤 것이 먼저인지 나눠놓는 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한다.

1.2. Duplex gratia Dei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칼빈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두 가지 은총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총이요, 다른 하나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룩한 열매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은총이다.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구원 얻는 일만도 감사한데, 우리의 선행과 봉사와 충성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기업으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의 교훈과 행함으로 구원을 입증한다는 야고보의 성화를 절묘하게 설명하는 교리가 바로 칼빈에게서는 하나님의 “이중적 은혜”이다.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인위적 선행이라는 구원교리를 배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거부하는 반율법주의자들(anti-nominalism)과 신령주의자들(spiritualists)을 배격하고 있다.

2. 목회사역의 두 가지 차원

칼빈은 목회에 대한 교훈에서도 두 가지 측면, 혹은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목회의 공적인 차원(public dimension)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차원(spiritual dimension)이다. 전자는 보이는 교회에 대한 바른 섬김의 안목을 열어주고, 후자는 보이지 않는 측면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제도적 교회의 약점을 일깨워주고자 교훈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 교회(the institution church)를 위한 공적인 목회사역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간략히 요약해 보자.

2.1. 목회사역의 공적인 측면

칼빈의 목회에 관한 가르침 중에서 첫째로 관심을 끄는 것은 공적인 목회사역에 관한 부분으로, 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되고 시행되어 온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어 외적인(outward)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다. 이 제도적 교회에 관한 가르침(ordō dicendi)은 대부분의 칼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이다.

목회사역은 우선 눈에 보이는 직분들과 사역들에 의해서 드러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직원들을 인정하고 임명하시며, 그들이 해야 할 임무를 규정해 주셨다. 목회자들은 먼저 자신의 신분과 책무에 대한 교훈을 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2.1.1. 교회직분 (Ecclesiastical Ordinances)²⁾

칼빈은 에베소서 4장11절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목회사역을 감

당하는 교회의 제도적인 네 직분으로,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규정하였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하는 자는 “특별한 예외적 직분”(extraordinary offices)으로서 초대교회의 기초석이 놓여짐과 동시에 종결된 직분으로 보았다. 칼빈은 다른 여러 목회서신들에 나타나는 교훈들을 고찰한 데 근거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교회의 네 가지 직분을 16세기에서도 억지로 짜 맞추어 네 가지 직분만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전통적인 주석들을 참고한 것이요, 특히 마틴 부서(Martin Bucer)에게서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웬델의 분석에 의하면, “모든 직분들은 결국, 각자 사람마다 부여받은 능력에 따라서 나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³⁾

즉,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합병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1559년판 「기독교강요」에서는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듯한 설명을 하고 있다.

칼빈이 강조한 것은 직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믿었던 바 성경적인 설명들에 상응하는 기능들을 다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조직을 가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교회가 담당하는 공적인 목회를 위하여 직분이 세워지고, 이것이 거룩한 교회의 질서와 제도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라면,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칼빈의 관심이 자 근본적인 강조점은 외적으로 드러난 직분자들의 외식이나 형식이 아니요, 교회의 합당한 질서와 필요에 따라서 성실히 기능을 수행하느냐의 여부였다.

물론, 칼빈은 위의 네 직분만을 무작정 엄격하게 주장한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칼빈은 자신이 초대교회의 시발점에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2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pp. 58-72: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

3) F.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New York: Harper & Row, 1963), p. 303.

2)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 tr. J. K. S. Reid, The

제한적으로 주어진 직분으로 해석하였으나, 위의 직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세움을 입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칼빈 자신은 스스로 감당하고 있던 제네바 교회에서의 직분을 “예외적 범주”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장로와 집사를 교회의 공적인 직분이자 일반 성도들이 감당하는 직분으로 다시 시행토록 만든 것은 제네바 교회에서 이룩한 칼빈의 실천부분에서 남긴 공헌 중에서 손꼽혀지는 교회의 개혁의 위대한 업적이므로, 초대 교회의 원상회복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교회의 공적인 제도와 직분에 대한 칼빈의 확신은 만인제사장의 신학에 확고히 근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하여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단과 평신도라는 계급구별을 반대하고,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요, 목회자들이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었다.⁴⁾

2.1.2. 목사직

위의 네 가지 직분 중에서도 이 논문에서 “목사직”, 또는 “박사”나 “교사” 직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개신교에서 만인제사장론을 받고 주장한다고 해서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직을 경솔하게 취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도리어 목사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성직자단이나, 제도적 국가가 주는 것보다 훨씬 권위가 있다고 보았다. 저명한 종교개혁 연구자인 빌헬름 포욱 교수는 개신교의 목사직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협주어 말한 바 있다. “목사의 권위와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4) Calvin, *Institutes*. iii. x.6. 칼빈도 역시 만인제사장설을 옹호하였다. 제사장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로 회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것으로 여겨졌다. 목사가 선포하는 것이나 시행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목사직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심각한 공적인 범법으로 취급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런 경멸은 모든 제도를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확신하였다.”⁵⁾

칼빈은 “통치”(governance)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놓고, 목사직의 일반목회적 측면과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주제는 일반 목회사역에 대한 칼빈의 교훈이 집중된 부분이다. 즉, 목사 또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도록”(to govern) 임명된 것이다. 칼빈은 “목사나 박사들이 없다면, 교회의 통치는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⁶⁾

「기독교강요」 제 4권 3장은 “교회의 목사들과 박사들”에 관한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진술한 부분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치하도록 의도하신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만이 그의 교회 안에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며, 또한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권위는 오직 그의 말씀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하고 실시되어야만 한다.”⁷⁾

여기서 분명한 점은 목사가 가지는 권위의 근거이자 힘써야 할 임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의 사역에 관한 것이다. 말씀을 시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회사역의 근본이요,

5) Wilhelm Pauck, *The Heritage of the Reformation*(Boston: Beacon Press, 1950), p. 133.

6) Calvin, 에베소서 4:11 주석.

7) Calvin, *Institutes*, IV.iii.1.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목사의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권위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데, 이 말씀이 나타나는 또다른 한 가지는 성례의 집행에서다.

칼빈이 목사의 권위를 대단히 높이고, 그 직무를 높이 인정하고 있는 또 다른 예는 죄의 고백을 사적으로 목사에게 할 수 있다고 한 점이다. 우리 죄를 사제들에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백해야 한다.⁸⁾ 그렇지만 칼빈은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사적인 자백을 목사에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목사직의 권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서 서로를 위로하고 붙들여 주어야 하지만, 목사는 우리 양심에 사죄의 확신을 주기 위한 증진과 후견인으로 임명되었고, 그 한도 안에서 목사는 죄를 사하고 영혼을 풀어준다.”⁹⁾

물론 이런 사적인 종류의 자백은 강요되거나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럴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권하도록 자유롭게 시행될 일이다.

2.1.3. 교회의 참된 표지(marks or signs)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의 본질(essence, nature of the church)에 대해서 논란을 하기보다는 교회의 표지를 중점적으로 거론하였다. 이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falsa ecclesia)를 구분하려는 교회 밖으로부터의 안목이 새롭게 열려졌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교회 내부에서 보는 관점에 있었고, 그 안에서 보는 안목에서는 교회의 속성들(the attributes of the church)만을 구분함으로써 충분하였다. 그래서 단일성(one, unity), 거룩성(holiness), 보편성

8) Calvin, *Institutes*, IV.iv. 9.

9) Calvin, *Institutes*, III.iv.12.

(catholicity)을 거론하는 정도였다.

그런 교회를 보는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실로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었다. 종교개혁시대에는 박해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교회로부터 배척당하게 되었고, 이제는 로마교회 밖으로부터 교회를 구분해 보려는 안목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외적인 표지를 구별하게 된 것이다.

참 교회의 표지 혹은 인상(notes)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교회의 객관성과 제도적 개념에 대한 명백성을 추구한 결과였다. 여기에는 사랑, 믿음, 혹은 순종 등의 개념들이 없었다.

무엇이 참된 교회의 표시이며, 교회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가? 개혁자들이 주장한 두 가지 표지는 성경에 따른 말씀의 선포와 정당한 성례의 시행이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선포가 중요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본 네 가지의 직분 중에서, 특히 목사와 박사라는, 두 가지 직분이 감당하는 사역은 참되고 순수한 교회의 존립을 규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있으며, 성례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시행되는 곳이라면 그 곳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¹⁰⁾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의 세 번째 표지로서 권징의 정당한 실시(discipline)를 들고 있다. 칼빈이 주장한 교회의 표지로서 세 번째 표지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첫째 표지인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서, 말씀이 바르게 들려져야만 한다는 측면이 칼빈에 의해서 강조되어 있다.¹¹⁾

그러나 칼빈은, 루터의 견해를 따라서, 말씀을 듣는 부분, 즉 정당한 순수성 여부의 시행을 조항으로 내세운 권징을 세 번째 표지로서 따로 독립시켜서까지 거론하지 않고 있다.¹²⁾

10) Calvin, *Institutes*, IV.i.9.

11) *Institutes*, IV.i.9.

12) The Augusburg Confession, Article VII: "But the Church is the congregation of saints, in which the Gospel is rightly

일핏보면 칼빈은 교회표지라는 항목에서 권징을 우선순위에 꼽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 제Ⅳ권 12장은 교회의 권세, 권위, 그리고 권징을 본질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 첫째, 권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된다. 둘째,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서 “성도들이 악인들의 무리에 의해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Ⅳ. xii. 5). 셋째는, “저급한 행동을 한 뒤에 수치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칼빈은 권징이 당연히 필요하며 위의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조직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교회는 매일 진보하지만 아직 완전치는 못하다. 아직 거룩한 목표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권징은 단순히 교회가 벌을 주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교회가 실시하는 징계의 핵심은 공동체의 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데 있는 것이지, 누구를 어떤 편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배제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권한 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권징을 참교회의 표시 가운데 하나로 정의(definition)한 것은 후기 정통신학에서다. 이 세 번째 표지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1560)과 ‘벨직신앙고백서’ (1561)에서 잘 드러나게 된다.¹³⁾

칼빈은 일생동안 제네바 시의회를 설득하여 「요리문답」을 가르쳤고, 이는 교회의 권징(discipline)이 실시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의 권징을 교회의 세 번째 표지로까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¹⁴⁾ 오히려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taught and the Sacraments rightly administered.”

13) The Scotch Confession of Faith, XVIII. The Belgic Confession, XXIX. cf.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III (New York: Harper & Brothers, 1919), pp. 419, 462.

14) 칼빈은 1556년 요아킴 웨스트팔(Joachim Westphal)과의 어려운 투쟁 가운데서 제네바 내에서 교회권징은 그가 의도한 만큼의 권한을 갖지 못함을 받아들였다. *Tracts and Treatise*, II, pp. 262 이하 참조.

「기독교 강요」 제Ⅳ권 12장에서 칼빈은 권징의 성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교회가 받은 열쇠, 즉 권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들이 복음의 선포 외에 어떤 것으로 머물러 있다는 사상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종교개혁의 초기 단계에서는 단지 참교회라는 인식이 가능한 것은 오직 말씀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인가의 여부였다. 당시로서는 이것만으로 참교회의 판단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직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된다는 것만으로는 후시대에 점차 다른 여러 항목들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말씀의 사역에 의존하는 교회론을 주장하면서 칼빈은 철저하게 말씀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에 앞선다고 주장하였다. 「기독교강요」 제Ⅰ권 7장에 나오는 성경의 정경론에 있어서도 교회란 단지 성령께서 말씀을 인정하는 도구로 쓰인 것뿐이라고 강조하였다. 교회가 성경을 있게 한 것이 아니요, 성경이 교회를 존재하도록 만든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교회란 생각할 수 없었다. 이점은 칼빈의 신학 전체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2.2. 직무에 대한 무질서와 자격박탈

공적인 목회사역을 잘못 감당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징계와 징벌이 주어지도록 권고하였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목사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비록 청중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당한 목회자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칼빈은 목회자가 자신의 직분과 신분을 망각한 채 교회를 사탄의 세력에 넘겨주어 버린 일에 대해서 철저히 경고하면서, 두 종류의 보고에 대한 회신 가운데서 이들 목회자들을 금지시키도록 권고하였다. 처음의 경우는 무력적인 난폭함(military excess) 때문이었다. 청중을 마치 군대처럼 이끌고 가면서, 완력으로 지휘하는 전쟁터의 독재자와 같아서 발생한 문제였다. 이 경우 공적인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그 목회자의 잘못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위를 박탈하도록

권고하였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일이 완전히 왜곡되는 것을 외면하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무가치하며 엄청난 부패를 고쳐야만 한다. 이로서 우리가 경계를 삼는 것이다. …이제 그가 불순종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특히 여러분의 경건한 권고를 받아들이기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는 까닭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취해야 할 길에 대한 우리의 충고이다. 여러분의 회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회중 앞에서 말하게 하고, 성숙하면서도 합당한 심사숙고를 거친 뒤에, 그가 못된 방식으로 수행하여 온 목회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¹⁵⁾

두 번째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사악한 행동을 하였다기보다는, 경솔하고 충동적인 목회자였다. 이 경우에도 목회사역에서 그만두도록 충고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손상을 덜 입으며, 그 목회자였던 사람이 겸손하여져서 다시 목회에 돌아올 때에는 새롭게 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인 잘못을 평생토록 기억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충고하였다. 다 지나간 옛날 일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 목회자의 잘못이나 실수를 거론해서는 안된다. 일시적인 실수인 경우에는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15) John Calvin, *Calvin's Ecclesiastical Advices*, tr. Mary Beaty and Benjamin W. Farley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pp. 100-01.

3. 목회사역의 영적인 차원

앞에서 우리는 목회사역의 가시적 부분에 대한 칼빈의 교훈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 논문의 중요한 부분으로 칼빈의 목회적 교훈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측면인 영적인 차원을 살펴보기로 하자. 칼빈의 신학이 항상 경건함과 생동감을 지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성령의 신령한 복을 간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검토한 제도적이고, 인위적인 차원에만 교회나 목회사역의 전부가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즉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3.1. 목사에로의 부르심과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

앞서 우리는 목사의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중요성과 강조를 보았다. 그러면 정작 어떤 사람이 이 직무를 감당할 것인가? 무엇이 기준이며, 누가 이 목사직분의 주관자요, 창시자인가? 우리 자신이 목사가 되고자 한다고 해서 어떤 자격을 구비하는 것인가? 칼빈은 성령의 내적 소명 또는 비밀스러운 부르심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목회자가 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목회사역의 본질상 그러하고, 또한 임무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도 그러하다. 목회자나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직분에 그 이상을 더 요청할 수 없으리만큼 만족하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않는다. 하지만, 그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며, 합당하게 세워진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 내에서 분쟁과 논란은 끝이 없을 것이다. 부요한 사람들과 자신들의 직분과 이름이 주목을 받는 사람들만이 교회의 직분들에 피택되어져야만 한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와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¹⁶⁾

목회의 본질상 목사는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증거하는 까닭에

그리스도가 목회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이 필수적이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에게 부어짐으로써, 그분께서도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으시게 되어지신 것이다. …성령부으심이 왜 필요하나면 유한한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어려운 직책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사도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영원한 구원의 대사를 간수하며, 이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향하게 하는 일 등은 진정코, 인간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다.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혀가 지배당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단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자신의 생애를 그분에게 바치겠다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전 생애를 방황과 미궁으로 빠뜨려버리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¹⁷⁾

칼빈이 제시하는 목사의 두 가지 이미지는 하나님의 학교의 교사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칼빈은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의 학교(즉, 성경)에서 교사 혹은 선생(*didaskalos*)으로 보았다.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많은 가르침들에서, 특히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딤후 3:2, 딤후 4:6-7, 딤후 4:13). 칼빈이 제시하는 설교자의 두 번째 모형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나온 것으로, 사신(使臣, *ambassador*)이다.¹⁸⁾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배운 바를 신실하게 증거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

문에, 그것은 보내신 분의 뜻이요 마음이다. 설교자는 이 메시지의 특성에 따르는 사신이다.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임명하심을 알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부여하신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 직분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준비되지 않는다면, …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거나 그들의 가르치는 직책을 합당하게 수행하여 복음의 목사로써 참되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¹⁹⁾ 칼빈은 좀더 상세하게 이 직책을 위해서 성령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목회적인 직분에 필요하다고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역시 필수적인 은사를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못하게 하시며, 적어도 빈손으로 맨몸으로 그 직무에 나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갈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규칙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은사들을 볼 수 있는가의 여부다.”²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칼빈은 목사의 직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됨을 힘주어 강조하면서도, 또 한 가지 그들 스스로 목사의 직책에 나서면서 목회자 자신들이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함을 강조한다. 아무런 준비나 노력이 없이 무조건 성령의 은사만을 기다리면서 인간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배격한다.

“내가 만일 한 권의 책이나 대충 읽고나서 설교하려 강단에 올라가거나, 혹은 내 속으로 경솔히 생각하기를 ‘나는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충분한 말을 주실 것’이라고 안일하게

16) *Calvin's Ecclesiastical Advices*, p. 92.

17) *Calvin Comm. on Lk.* 10:6.

18) 「칼빈전집」, 26권 65쪽, 신명기 3:12절 설교.

19) *Calvin Comm. on Mt.* 9:37.

20) *Calvin Comm. on Jn.* 20:22.

생각해서, 무엇을 선포해야만 할 것인가를 위해서 읽거나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다거나, 성도들의 교화를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성찰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만하고 건방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²¹⁾

물론 인간의 노력과 준비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이고, 종속적인 것이다. 칼빈의 강조는 언제나 모든 목회자나 목회사역은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자신이 준비되지 않고서 가르치기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경건한 설교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인가를 묻도록 촉구하고 있다. …참으로 그들은 부지런히 연구하여야 한다. 만일 준비되지 않았다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더욱 그들이 항상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리는 자신들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성령의 은사이다. 참으로 그들이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 하에서 공적으로 나타낼 것들이란 극도로 경솔한 것들이 되어지고 말 것이다.²²⁾”

3.2. 말씀 선포와 은혜

칼빈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은혜롭게 되어진다고 역설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오직 설교자의 상상력이나, 문장력이나, 웅변기술이나, 언어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

21) Quoted from T. H. L. Parker, John Calvin, *Calvin Comm.* on Gal. 4:19.

22) *Calvin Comm.* on Isa. 50:4. I Tim. 4:13-14.

다. 설교자의 말이 단순한 소리에 불과하거나 어떤 효과도 얻지 못한 채 공중에서 사멸되어버리고 말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설교자 자신의 이념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다. 칼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뿔뿔히 떨어져 있을 수 없이 일치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연합하여 효력이 나타나도록 큰 능력을 주신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는 자신들의 어떤 것도 첨가하려고 해서 안된다. 특히 설교자는 오직 그것을 만드신 분의 뜻만을 순수하고 신실하게 증거하고, 교회에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 자신의 선포라는 확신에 서야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권능을 갖게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4:12절 주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과 신빙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겸손히 인식하게 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피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깊은 곳을 꿰뚫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권능이 함께하는 설교라고 말할 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된다. 사람들을 흥분과 열정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고, 때로는 감격의 눈물과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인 웅변의 효과를 살펴내면 얼마든지 청중을 감동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눈물겨운 예화나 극적인 결과가 있었던 사건들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면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고 만다.

여기서 칼빈이 강조하는 바는 항상 권능을 가진 말씀인데, 이는 성경과 일치하는 설교임을 의미한다. 각기 설교자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더라도 권능있는 말씀으로 역사한다. 성령께서 기록자들에게 주신 의도를 계속해서 성취하도록 보장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교자가 그 메시지를 성경의 기록자들의 정신에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했다면, 이는 권능있는 설교요, 성령이 함께하신 설교이다.

결론

요한 칼빈의 목회적인 가르침에는 두 가지 차원이 항상 발견된다. 하나는 공적인 측면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목회적 교훈을 얻고자 할 때에 이 두 가지 측면 중 어느 한쪽, 일부에만 치우침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나치게 제도적이고 공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 교회는 일종의 기관처럼 되어버린다. 교회가 사업이나 회의하는 경우처럼 역동적이지 못하고, 생동감이 없다. 반면에 지나치게 영적인 부분을 치우치다 보면, 교회는 질서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목회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해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목회사역을 통해서 이룩하고 계신다.

오늘의 한국교회 목회에는 양자의 균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측면, 즉 목회사역의 영적인 차원에서, 또는 신령한 복(엡 1:3, every spiritual blessing)을 주시고자 성령은 목사와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헌신케 하시며, 그가 받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도 이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열매맺게 하신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항을 칼빈의 지적을 통해 배우게 된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가 언제나 성령을 소유하고 다니면서 그가 성령을 붙잡고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칼빈은 지적한다.²³⁾”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을 행한 사도였으나, 오직 자신은 일꾼이요, 종이요, 사역자(minister)일 뿐이요, 결코 성령님보다 큰 자가 될 수 없음을 항상 인식하였다. 세상을 뒤바꿔 놓는 은사를 행하는 일꾼이라도, 태산을 옮겨 놓는 능력을 행하더라도,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존할 뿐이다.

오늘의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사역의 영적인 차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가 많다. 물론 공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와 바른 자세를 교훈받게 된다. 목회자들이나 혹은 설교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성령님보다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성령의 신임받는 일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전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23) Calvin Comm. on I Cor. 3:6.